

홍천 관내 면지역 어르신 대상 복지관 송영 프로그램 ‘홍노복카 시동을 걸다’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홍노복카 시동을 걸다’ 프로그램이 오는 10월까지 면지역 5개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복지 소외 5개 경로당 회원 대상 노래 교실 등 진행 삶의 질 향상

홍천군의 총 인구 69,949명(홍천군청 인구 및 세대현황. 2018년 12월 31일 인구현황) 중 65세 이상 인구는 16,406명으로 23.5%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의 읍면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홍천읍은 5,604명, 화촌을 포함한 9개 면지역은 10,802명으로 읍에 비해 면 지역 노인인구가 193%로 2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홍천군의 면적은 1,817.94㎢로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사업개요

- 일 시 : 2019.03.06.~12.20(10개월), 10:00~12:00
- 장 소 : 홍천군노인복지관 본관 1층, 제 1프로그램실
- 대 상 : 홍천군 면지역 5개 경로당 어르신 약 70여명
⇒ 두촌면(자은1리), 동면(성수리), 남면(시동3리), 북방면(중화계리), 화촌면(송정리)
- 내 용 : 원예프로그램, 노래교실, 인지·치매예방, 생활건강 프로그램 / 중식 / 송영

원센터 등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홍천읍을 제외하고는 면 지역에서는 다양한 건강관리 및 여가·취미 관련 등의 교육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면 지역 소재지의 어

르신에게 직접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관 접근성을 확대하고, 소외지역인 면 지역 어르신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사회복지사 김서연

‘두뇌톡톡’ 인지 지원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인지지원등급의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 ◎ 기 간 : 연중
- ◎ 장 소 : 홍천군노인복지관
- ◎ 일 시 : 주 3회(월, 수, 금요일)
10:00~14:00
- ◎ 대 상 : 인지지원등급 판정 경증치매 어르신
- ◎ 이용료 : 무료
- ◎ 내 용 : 인지지원·건강지원·여가정서·기타

행복한 우리들은 이심전심!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노노 케어 사업인 이심전심은 60세 이상 봉사자 어르신들과 저소득 재가 독거 어르신이 함께 하는 안부전화 활동이다.

이심전심은 봉사자 어르신이 독거 어르신에게 주 1회 안부전화를 드리며 건강 여부, 식사 여부, 외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특이사항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봉사자 어르신은 독거 어르신에게 주 1회 전화 활동을 하며 독거 어르신의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심리 동기 부여를 해드렸고, 봉사자 어르신은 독거 어르신이 활기차게 변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

행복한 우리들은 이심전심! 활동을 통하여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자 한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도 이심전심으로 쌓은 우정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사회복지사 손민지

CONTENTS



- 02 - 살만한 홍천
- 03 -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 04 - 경로당 탐방
- 05 - 스포츠 및 행사
- 06 - 문화행사

- 07 - 자원봉사단체 소개 및
칭찬
- 08 - 독자기고



살만한 홍천

화촌면 굴우리 김영모(65)씨

폐품활용 ‘조형예술’ 20년, 홍천명소 만드는 게 꿈



**“아름다운 홍천산하 자랑하고 싶어”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며 부지 찾아**

홍천에서 인제방면으로 44번 국도를 타고 홍천읍과 화촌면 경계선인 굴우리에 다다르면 다양한 조형예술품이 눈길을 끄는 곳이 있다.

돌무덤이 드문드문 설치된 사이로 각종 철공 상징물들이 전시되어 언뜻 보면 불교시설 같이 보이기도 하고 무속신앙 숭배 장소의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종교 관련은 없다고 한다. 호기심을 끌고 있는 이곳은 김영모 씨가 부지 선정부터 조형물 제작 등 20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조성한 ‘예비 홍천의 명소’이다.

홍천에서 출생하여 홍천에서 초·중·고를 마친 홍천토박이 김영모 씨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 출발하여 홍천군청 산림과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강원도내 여러 시·군을 돌며 근무를 해 왔다.

어린 시절부터 공직 근무하는 성년기간에 홍천을 사랑하고 홍천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일념에 가득 찼던 김영모 씨는 2000년 공직 퇴직 후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부지 선정을 위해서 3년 간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던 차에 보전임지로 아무도 관심 없던 지금의 터전을 살펴보고 ‘바로 이곳이다’며 눈에 확 들어 왔다고 한다.

**명품 볼거리 먹을거리 위해 각고의 노력
금속 폐품으로 조형예술품 수백 점 제작**

김영모 씨는 이곳을 발견한 후 교통량 조사와 향후 서울 양평 홍천 간 도로망에 관하여 검토한 후 망설임 없이 매입했다고 한다.

국도변이면서 야산을 등지고 있고 앞쪽은 국토관리공사 공원이 있어서 가용면적이 충분한데다가 홍천강 상류와 너른 들판을 관망할 수 있어 이만한 위치가 또 있을까 할 만큼 만족스러운 곳이라 했다. 부지 결정 후 임시건물을 짓고 금속 폐품을 활용한 조형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명소가 되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알린 후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여야겠다는 계획을 실행한 것이었다.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주방제품, 농기계부품 등 갖가지 폐품을 구입하여 인형, 조화, 금수, 리모델링 조형 등 수백 점의 조형물을 제작했고 그 조형물들이 어우러지며 거대한 예술 공원이 탄생되게 된 것이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전시장 겸 카페 건물을 완성하고 식당건물도 건립 계획 중에 있다는 김영모 씨는 “이 곳에서 차 마시고 식사한 후 홍천강과 홍천 시가지를 감상한 관광객들이 홍천을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추억을 담아 갔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후손들이 홍천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좋은 터전 물려주는 것도 미덕이라 생각”**

홍천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필연적이고 그러한 일환으로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김영모 씨는 “귀농·귀촌 권장도 좋은 방법이지만, 홍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손들이 홍천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후손들에게 홍천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피력한다.

“홍천군에서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를 표방하고 관광객 유치에 역점을 두듯이 군민들도 각자 자기 영역에서 창의력을 갖고 계획하고 근면 성실히 추진하면 홍천이 더욱 살만한 고장이 될 것을 확신한다.”는 그는 취재 당일에도 잔디를 심고 물을 주느라 여념이 없었다.

김영모 씨가 만든 각종 조형물들은 생명이 있는 듯 표정을 짓고 서로 어우러지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도로 건너편 너른 논바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글자와 문양으로 특색 있게 모래길을 하여 그 풍경 또한 장관을 이루고 있어 한번쯤 방문해볼만 하다.



허남영 기자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내촌면 헤이즐넛 농장

헤이즐넛, 홍천의 대표 견과류를 꿈꾸다



◇2013년 홍천군 내촌면으로 귀촌해 헤이즐넛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찬우 회장(사진 오른쪽)과 재배중인 헤이즐넛(사진 왼쪽).

2013년 귀촌 ‘농업인연구회’ 결성 8천주 재배 저장성 뛰어나고 연중 유통 가능 새소득 작물

헤이즐넛나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이다. “헤이즐넛”이라고 하면 커피의 이름쯤으로 생각이 되며, 주산지인 남미나 동남아시아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헤이즐넛 나무를 재배하고 묘목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다.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산중턱에 자리한 홍천헤이즐넛연구회 박찬우회장(69세)의 헤이즐넛 농장이 바로 그곳이다.

안녕하세요? 헤이즐넛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찾아 왔습니다.

- 헤이즐넛은 어떤 작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릴적 산에서 깨금이라는 열매를 한번쯤 깨물어 보신 분들이라면 개암나무를 아실 겁니다.

그 개암나무를 개량하여 만들어진 품종, 대과종으로 기존 개암나무에 비해 열매가 월등히 클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많고 특유의 고소한 맛을 지닌 나무를 헤이즐넛 나무라고 합니다.

영하 30도 이하에서 견딜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생육이 무난하고 암꽃과 수꽃이 함께 피는 자웅동주 식물로 바람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는 풍매화 꽃이죠. 자작나무과에 속하며 개량개암나무 한 품종만 식재하여도 결실이 잘 됩니다.

- 헤이즐넛을 재배하게 된 동기는?

홍천군의 85%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구릉지를 개발하여 작물을 심어 비교적 재배도 용이한 신소득 작물인 헤이즐넛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 헤이즐넛 연합회를 결성하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천 헤이즐넛 농업인연구회 창립총회를 올 3월

에 갖고 제가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은 30명이 있고 식재 농가 회원은 20여명 됩니다.

- 귀농 하셨는지요? 그리고 여기에 오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는지요?

전북 정읍이 고향이고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13년간 주역을 공부하다가 2013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로 귀촌했습니다

- 헤이즐넛의 전망은 어떤지요?

개암(헤이즐넛)의 맛, 고소득, 까다롭지 않은 재배환경이 있겠는데요. 세계 4대 견과류(호두, 아몬드, 헤이즐넛, 캐슈넛)중 하나이며,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은 식물성 지방으로 이루어져 수요가 급증하므로 주산지인 터키에서는 한해에 1조 원 가량을 수출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전망이 밝다 하겠습니다.

- 헤이즐넛을 커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이는지요?

헤이즐넛은 8가지 필수아미노산과 칼슘, 인, 철 등의 각종 미량요소들을 고르게 함유하고 있고 인체가 흡수하기 쉬운 지용성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남녀노소에게 좋은 건강식품으로 1일 권장량이 4알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 기력을 돕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한방에서는 신체허약과 식욕부진 등의 피로, 현기증 등에 처방됩니다.

보습작용이 뛰어나서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되며 현재 수제비누도 만들어 사용하고, 질 좋은 식용 유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 헤이즐넛 농장의 규모와 수익성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현재 저희 농장엔 8천주를 식재하고 있으며, 식재간격이 좁아 많은 수량을 심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식재후 2-3년 후부터 수확가능하며, 6-7년이면 1주당 최대 10kg 수확이 가능합니다. 내한성이 강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토양적응력이 뛰어나 전국 어디서나 재배 가능하죠. 여느 과수보다 재배 관리가 편하고, 기존과수 재배의 10분의 1도 안되는 인력으로 관리 가능한 경제수종 열매로서 저장성이 좋아 일년 내내 유통이 가능하며 고급 견과이므로 단가도 비싸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현재 우리나라 헤이즐넛 생산량의 40%를 홍천에서 식재하고 있어요. 구릉지를 더 개발하여 헤이즐넛 재배를 통해 커피 대체시장 구축 및 화장품 개발 등으로 홍천을 헤이즐넛 메카로 발돋움 시키고자 합니다.

- 끝으로 헤이즐넛 재배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산을 매입할 경우 약산을 사서 구릉지를 개발하면 더 많은 평수의 임야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헤이즐넛 나무를 식재한 후 10년 정도만 지나면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에 비교적 안정된 신소득 작목으로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한 헤이즐넛 묘목처럼 박희장님 건강관리도 잘 하셔서, 홍천 헤이즐넛연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하경 기자



천년고찰 수타사 마을로 유명... 60명 회원 '한가족'



◇마을청소를 마치고 경로당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덕치리 경로당 회원들(앞줄 왼쪽 2번째 박건환 회장)

게이트볼 즐기며 매주 3회 마을 청소 실시 경로당 지난해 새단장 쾌적한 환경서 생활

동면 덕치리 경로당은 홍천 9경중 제6경인 수타사 입구에 있으며 회원이 60명으로 여성회원이 40명이다. 장수노인은 91세의 김일순, 90세의 박상환 어르신이 계시다.

매년 약 3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수타사를

방문하고 있고 방문객들이 덕치리 마을을 꼭 지나가야 해 주말엔 마을이 많은 차량과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데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려 불편함도 있다고 한다.

현재 박건환 회장이 노인회를 이끌고 있으며

박회장은 홍천군 이장 협의회 3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수타사의 성보박물관의 해설사로 지역 홍보를 위해 10여간 활동하는 등 노인회장으로 추대되기 전까지 덕치리는 물론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 바 있다.

덕치리는 친환경 농업을 시작하여 매뚜기가 있는 청정 지역으로 약 100억 원을 투입해 하천 제방 공사를 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경로당 회원들은 마을에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고 매주 월,수,금 3회에 걸쳐 마을 청소를 하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날도 박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마을청소를 마무리 하고 다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홍천 약국에서 진행하는 건강봉사교실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회장은 도시에 사는 친동생을 덕치리로 귀촌하게 하여 현재는 마을 이장 (박경환)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의 경로당은 2018년 12월 준공하여 새롭게 단장되어 있어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말씀하시며 경로당 회원들을 위해 봉사와 희생 정신으로 회원들과 함께 여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계획이라고 하신다.

끝으로 손주가 2016년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했다고 살짝 자랑 하시는데 홍천을 빛내는 인물로 거듭성장 하길 기대해 본다.

활기 가득한 덕치리 경로당 분위기에 취해 취재를 마치며 오는 길이 마냥 기분이 상쾌했다.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홍천군 동면 소개

1. 동면 개요

홍천군 남부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은 149.64㎢이며 인구는 3,814명(2019년1월 기준)이며 발교산(998m), 대학산(876m), 오음산(930m), 대의산(675m) 등의 험준한 산들이 솟아 있으며, 덕치천, 성전천 등이 흐르는 좌운리, 월운리, 개운리 일대는 규모는 적으나 비옥한 평야로 농경지와 취락이 밀집해 있다. 노천리에 산삼 연구단지가 있다.

2. 교통

중앙고속도로가 남서부로 지나가지만 접속 나들목이 없어 홍천읍 나들목을 이용해야 한다.

국도는 없고 지방도 444번, 406번이 지나간다.

3. 관할리

- 동면사무소(동면 공작산로 497, 033-436-6559)
- 속조리, 신봉리, 덕치리, 성수리, 삼현리, 방랑리, 월운리, 후동리, 개운리, 노천리, 좌운리 등 11개의 법정리(행정리 14개)와 72개 반이 있다.

4. 역사, 문화, 관광자원



조선시대 홍천현 영귀미면이었으나 1917년 동면으로 개칭되었다. 우리나라 100대 명산인 공작산(887m)이 있으며 영서내륙 최고의 명찰인 수타사가 있고 민공호 격전지 등이 있다. 덕치리에 있는 공작산은 한국 100대 명산이며 공작산 수타사는 홍천 9경 중 제6경으로 지정 되었다. 공작산은 공작산 정상에서 홍천군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며 산세가 공작이 날개를 펼친 모습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단풍이 일품이며 기암절벽과 물새들이 놀며 눈덮인 겨울산도 볼만하다.

수타사는 708년(신라33대 성덕여왕 7년)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고, 비교적 소규모의 절인데도 경내 성보박물관에 보물745호인 월인석보(제7,8권)와 1364년 만든 수타사 동종(보물 11-3호), 대적광전(강원도 유형문화재), 소조사천왕산(강원도 유형문화재121호), 영산화상(강원도유형문화재 122호) 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다. 또한 괴톤치드를 느끼며 걷기에 좋은 산소길은 트레킹 거리가 4.73km로 약 1시간 소요된다. 수타사 입구에는 2009년에 조성한 공작산 생태숲 교육장이 있는데 소개하면 중부,강원영서 내륙지방의 자생식물의 보존, 관찰, 확보, 증식 및 생태 관광 자원 창출과 생태 체험학습장을 목적으로 초화류(금낭화, 매발톱꽃, 삼지구엽초, 나리, 오미자 등), 관목류(오갈피나무, 철쭉, 조팝나무, 자귀나무, 때죽나무 등) 연못(수련, 어리연, 가시연, 개구리연) 소나무광장, 생태숲 교육관 등이 있어 산림문화, 체험 휴식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다.

5. 기타

수타사 (수타사로 473, 033-436-6611)

동면 보건지소 (공작산로 655, 033-436-6551)

스포츠 및 행사

홍천군,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성료



◇강원도민의 한마당 축제인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지난 5월 31일 홍천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사진은 홍천강 발원지인 서석면 미약골에서 진행된 성화 채화와 종합 3위를 차지한 홍천군선수단(맨 오른쪽).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홍천군에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개최되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1,200여명이 참여하여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였다.

1. 성화 채화식 행사

홍천강 발원지인 서석면 미약골에서 홍천향교의 최수옥 전교를 비롯해 장의와 유림들의 제례를 올리고 성공의 개최를 알리는 성화 채화식을 갖고 홍천군으로 이동하여 안착식이 진행되었다.

다음날인 5월 31일 군청 앞 마당에서 간단한 예식

을 마치고 제일 주자인 홍천문화원장(박주선)을 비롯하여 홍천문화재단 대표이사(전명준),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장(이형주)등 홍천을 대표하는 42명의 선발된 주자가 성화 채화를 위해 홍천군종합운동장으로 이동하였다.

2.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홍천군 3위 입상 쾌거

지난 2005년에 유치되고 14년 만에 2회를 유치하게 된 홍천군은 7만 군민이 하나 되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여 지난 2018년 종합 6위에서 올해 종합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3. 최선을 다한 선수와 임원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다소 부족함과 불편함도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통해 강원도가 한층 더 화합된 모습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선수와 임원 여러분들에게 홍천군 7만 군민은 박수를 보내며 좋은 추억만 간직하여 2020년 제55회 도민체육대회에서 만날 것을 다시 한번 기약했다.

안태수 기자



게이트볼 시리즈

홍천협회장기 3차례 우승한 강팀



북방면 하화계2리 게이트볼클럽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에 소재한 게이트볼장은 1999년 5월경 동네 이장과 개발위원이 하이트 맥주공장을 찾아가 게이트볼장 건립을 청원하였더니 흔쾌히 허락하여 동네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해 주었고, 홍천군 체육회에서 인조잔디를 깔아주었다. 현재 회원이 17명이고, 여자 회원이 4명이라고 하며 전성기에는 32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게이트 실력도 홍천에서 제일이라고 한다. 홍천 협회장기대회에 우승을 3번이나 하여 우승기를 영구 보존하고 있다고 하며 지금은 잘하던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회원도 줄고 우승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게이트볼장은 동네 유일한 쉼터 역할을 한다고 한다. 밥도 군 체육회 후원으로 여자 회원이 손수 밥을 지어 먹고 동네에 정보를 교환하므로 동네의 유일한 말방 역할을 해서 행복하다고 한다.

두미A팀 우승... 회원간 화합 다져



제4회 서면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홍천강이 흐르고 홍천 1경인 팔봉산이 어우러진 곳은 예부터 홍천강 하류라 하여 수하지역이라 불려졌다. 수하지역에서 어르신들 중심으로 매년 개최되는 게이트볼 대회는 어르신들의 큰 행사이다.

서면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고독을 퇴치시키는 경기이다. 홍천체육회의 후원과 서면 면사무소 직원의 술선수범 그리고 서면 부녀회가

정성껏 음식을 요리하여 오찬을 배설하므로 회원 간의 상호 담소를 나누어 친목을 도모하였다.

대회 결과는 1위 두미A팀 2위 모곡A팀 3위는 모곡B팀, 길곡 팀이 차지하였다.

서면 체육회장은 홍사선 회장이 두미A팀이 차지하고 경기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광명 기자



찰나의 순간 담아 영원한 감동 선물



◇한국사진작가협회 홍천지부가 지난 5월 개최한 제2회 사진전에 참석한 허필홍 군수(사진 왼쪽 두 번째)가 사진전을 관람하고 전시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인간의 시야, 인식 한계 넘어 예술로 승화 똑같은 사물도 작가따라 작품 달라 감동적

색과 빛의 사진예술을 찾아서

한국사진작가협회 홍천지부의 주최로 제2회 사진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을 찾았다.

홍천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사진작가들의 혼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5월 17일부터 5월 23일(토) 오후 5시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작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친절하게 작품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었다.

관람을 하는 동안 이해가 되지 않는 작품은 설명을 들으며 의문이 나는 작품은 질문을 함으로써 작품을 감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똑같은 사진을 찍어도 사진작가들의 사진은 빛과 색을 순간 포착한 업그레이드된 예술 작품으로 탄생이 되고 있었다.

찰나의 빛과 색의 세계가 조용하면서 작품의 내면세계를 여행하며 많은 이야기를 담아 낼 수 있는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행복이었다.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그 순간의 감동과 공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는 것이 예술의 본령일 것이다.

사진 예술의 역사

사진은 언제부터 예술 장르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는가?

1900년대 초 앨프리드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 1864~1946)는 현대 사진의 아버지로 인정을 받았다. 스티글리츠는 유년 시절부터 줄곧 사진에 관심이 많았다. 두 살 때는 사촌의 사진에 빠져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다. 아홉 살 때는 한 전문 사진가가 흑백 사진에 색소를 입히는 것을 보고 사진의 질을 떨어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1887~1911년에 스티글리츠는 사진술을 하나의 예술 장르로 승화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물론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사진이 그림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예술의 하나의 장르로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또 미국의 정서를 사진에 담으며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을 했다. 그가 중점을 둔 것은 뉴욕시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02년 스티글리츠가 사진 분리파를 설립할 때쯤에는 이미 사진 고유의 예술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1903~1907년까지 사진 전문 잡지

〈카메라 워크〉를 편집하고 출판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그는 성공가도를 달리는 경력과는 달리 결혼 생활에 한 번의 실패를 겪기도 했다.

미국의 화가 오키프와 재혼하면서 연인에 대한 열정을 사진 예술로 표현하였다.

사진 예술에 대한 인식

사진의 등장은 미술계에 어마어한 충격이었다. 사실성을 중시하던 기존 고전미술들이 어떻게 해도 사실성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와 맞부딪히게 된 것. 이로 인해 현대 미술은 다른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된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인상파, 야수파, 추상화, 초현실주의 같이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작가의 독특한 관점, 감정, 생각을 부각시키는 미술사조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진의 극 사실성에 도전하는 극사실주의 화풍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데는 실패했다. 본디 사진은 회화의 복제 수단 정도로 여겨졌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나 이후 사진기의 원형인 카메라 옵스큐라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한 스케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 그런데 사진기의 등장으로 인해 상을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더 이상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사진의 예술적 특징

사진은 태어날 때부터 과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이런 특성은 기존 회화가 가지지 못했던 표현과 리얼리티를 내세우는데 적합하였다. 이러한 사진의 특징은 예술적인 것과 결부되어 몇 가지 특징을 낳는다.

인간의 시야 한계나 인식을 넘어서 현실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반영한다.

사진은 모두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기에 과거의 시간을 현재에 재생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진은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대상의 모습이 무한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 대상이 갖는 의미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찰나적이고 즉흥적인 비주얼 시대에 과거 순간의 포착을 예술로 승화시켜 재현하는 사진예술은 의미와 가치가 크며 많은 공감과 감동을 준 전시회였다.

김정현 기자



자원봉사단체 소개 및 칭찬

홍천상록자원봉사단

“봉사는 저축하듯 묵묵히 건강할 때까지 해야죠”



◇공무원 출신 15명이 2016년 창단한 상록자원봉사단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갖은 일을 마다않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무원 출신 15명 회원 복지 사각지대서 3년째 봉사 노인복지관 등서 배식, 설거지 등... 주1회 재능나눔도

홍천상록자원봉사단은 홍천의 다른 봉사단체에 비해서는 2016년 창립된 새내기 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초대단장이신 신현배(67)님과 사무국장이신 김효식(61)님을 만나 봉사단의 창단부터 지금까지 회원들과 봉사단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원은 공무원출신들로 남녀 15명으로 단출한 편이다.

봉사내용은 어찌 보면 대동소이한 것 같지만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이나 자세는 좀 다른 면이 있는 듯 보인다. 평생 공직에서 주민을 섬기거나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일생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이제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또는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삶이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사 도우미로 식재료 손질에서 조리보조, 배식, 설거지며 뒷정리까지 한다. 이러한 일들은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이며 이런 봉사활동으로 인해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가정에서도 자연스레 아내를 도와 주방에 자주 들어가고 아내도 기뻐하는 일이 되어 기꺼이 돕는다고 한다.

또한 재능 나눔도 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래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색소폰 연주나, 대금연주 등 민요팀이 참여하여 더 멋진 음악회를 만들기도 한다.

월 만원의 회비는 회원모임 때 차를 마시는 것으로 절약하고 나머지를 적립한다. 면장의 추천을 받아 1년에 2가정에 300장씩의 연탄을 들여 놓는 봉사도 있다. 겨울철 봉사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아산병원에서 김장봉사도 한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소속 11개 시 군에서 최우수봉사단으로 선정되어 상금으로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번 홍전에서 열리는 강원도민체전 때는 축구경기장 안내와 생수 제공을 맡았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 늘 나오시던 어르신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가 편찮으신지, 혹시 먼 곳으로 가시지나 않으셨는지 안타깝고 아련한 슬픔이 밀려온다고 한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다보면 복지관 어르신께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할 때 행복하다.

우리는 봉사한다기 보다 기쁨과 보람을 덤으로 얻어 오고 거기다 더하여 금지도 얻고 자부심까지도 얻는 이런 만족감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

한다고 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일도 한다. 신현배 단장은 소규모 과일 농장을 가지고 일도 하고 사무국장도 텃밭을 가꾸며 땀 흘리는 만큼 결실로 돌아오듯 우리의 삶은 공짜는 없다며 노력하며 사는 노년이 행복해 보였다.

“봉사는 저축하듯 건강할 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위로받고, 마음속의 해결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도 치유가 된다고 하며 봉사는 많은 유익함이 있음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습관처럼 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듯 우리가 국가로부터 또는 사회나 이웃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상록자원봉사단의 섬김의 모습은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느껴졌다.

할 수만 있다면, 건강이 허락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겠지만 쉽게 하지 못하는 일도 봉사라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

체면 때문에, 위신과 자신의 과거 경력에 불잡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을 기쁨으로 열심히 하면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이다.

보다 나은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 날을 향해 오늘도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은 아름답다.

김순화 기자



독자기고

**이 세 현**

전 춘천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사교육 수요 공교육 체제 내 흡수, 학교교육 내실화, 사회문화 풍토가(세부내용은 생략) 2004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내놓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다. 당시 교육부가 분석한 사교육실태를 보면 2003년 사교육비 수준이 13.6조 원이다. 초등학생이 83.1%, 중학생의 75.3%, 고등학생의 56.4%(전체 평균 72.6%)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사교육비가 19조원에 이른다. 당시 교육과학부는 사교육의 발생 원인을 학벌주의, 점수위주 진학경쟁, 학교의 교육수요 미충족, 사교육기관의 기민한 대응 등 사회문화적 제도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위의 서두에 언급한 내용들이다. 교육위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원의 자질부족이라고 판단해 교원 평가와 함께 방과후 학교가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다.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든 방과후 학교 15년이 지난 지금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되었는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의 근원적 해결책이라며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교원 확보 및 수준별 교육 강화' 대학입시에 예측된 고교교육의 정상화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근절해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사교육은 이제 공교육을 앞지르고 있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졸고 잠자고 있다. 모름지기 공교육의 개념은 국가에서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의 필요한 인재육성이라는 목적 면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같다.

그렇다면 이에 반하는 사교육의 개념은 어떠한가? 옛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립학교와 같이 법인이나 개인의 재원에 의하여 유지되고 운영되는 교육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위와 같이 공교육 안에 이러한 사립학교 교육이 포함되고 있으며 지금의 정의로는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입학시험 준비를 하는 과외수업이나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에서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래 사교육은 공교육에 뒤쳐진 아이들을 보통의 아이들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과과정을 뛰어넘는 문제출제금지, 학교교육 정상화 등을 대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대책으로 내놓았지만 달라진 게 없이 백악이 무효였다.

현 정부 역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원인분석부터 내놓아야 한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만 투여하는 식의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교육부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에도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었다. 저출산 고령화의 기조로 앞으로 청소년 한명 한명이 귀중한 존재인데 청소년들의 중도 학교 자퇴는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무려 36만 명에 이른다. 학교를 등진다는 아이들이 줄지 않는 것은 공교육의 심각한 위기인 것이다. 어느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교육이 정말 자신들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조사결과 자아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87.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이다. 교육이 무너져 가는데 책임질 주체는 없고, 학부모는 여전히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알바를 뛰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사교육 없는 세상, 공교육의 정상화는 언제쯤 일는지~~.

공교육 이대로 좋은가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제 준하는 학교교육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이란 개인이나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를 공교육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옛 고대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국가의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왕조들은 국가의 교육기관을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의 양성과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써 설립하였다.

이처럼 옛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수단에서 볼 때 옛 사회에서는 물론 왕권 강화의 정치 수단으로서의 요인이 훨씬 강하

위해 만들어진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교육시장에 있어서 사교육이란 고액과외, 부유층의 족집게 과외, 학원 등으로 인식되며 교육의 보조적인 수단이 아닌 교육의 주적인 요인으로 적용되면서 사교육 시장은 견잡을 수 없을 만큼 방대하게 교육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오히려 이제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뛰어 넘어서 교육의 주가 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풍조를 막고자 지난 정부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진 게 없고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수축과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금지, 각종 입시에서 이전 교

독자기고

**석 도 익**

소설가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나라 표상이다. 힘차게 약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는 군가 중에 일부다.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시상식에서 맨 먼저 올라가는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가슴 벅찬 환희를 모두 경험했을 것이다.

망망대해에서 만나는 배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았다면 바다가 온통 내 나라로 보이고, 휴전선 비무장지대 고지에서 펼쳐지는 국기를 바라보면 가슴에서부터 뻗어나오듯 치솟아 오르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국기를 지키기 위해 일본헌병의 칼에 태극기를 든 팔이 잘려나 가도 다시 다른 손으로 주어주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선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기계양을 엄숙하게 하고 하루를 시작했고, 일몰 하향식을 장엄하게 하고 하루를 마쳤다. 국경날에는 국기를 게양했다더라도 거두어 소중하게 보관했던 국가의 표상이었다.

국기 하강식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주위에 사람들은 바쁜 발걸음을 멈추어서 태극기를 바라보며 가슴에 손을 얹으면 무언가 흐뭇하고 너무 좋았다.

언젠가부터 애국가 듣기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때때로 더러우며 찢어진 국기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관공서나 길거리 전주에서 널브러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국기를 24시간 365일 게양하기로

하였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글썽했다. 그러면 애국심이 365일 생성되리라 믿는 것인가 했다.

국기계양과 하강,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반드시 군국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고, 일본제국주의 냄새만 나는 것인가?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런데 참 해도 너무한다. 도로이건 아파트건 심지어는 어떤 관공서에서건 태극기는 더럽게 때가 묻고 찢어진

것들이 많았고, 비가 오면 축 늘어져 있는 태극기를 보면 가슴 시리다.

태극기에 대한 홀대와 같이 애국가에 죽에 뿌리를 둔 민족정신도 때 묻고 빛바래져가는 것만 같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과 일본 수신사 일행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해, 1948년 정부수립을 계기로 태극과 사괘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규격을 통일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이 오늘날까

지 준수되고 있다.

태극기는 백의민족의 상징인 평화의 흰색 바탕에 기원 중앙에는 존귀와 양(陽)을 의미하는 빨간색을, 희망과 음(陰)을 의미하는 청색으로 우주자연의 궁극적인 생성원리를 상징하는 태극이 도안되어 있고, 사방 모서리의 대각선상에는 사괘가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다.

☰ 건(乾) 건괘(乾卦)는 우주만물 중에서 하늘을 의미하며,

☷ 곤(坤) 곤괘(坤卦)는 우주만물 중에 땅을 의미하고,

☲ 이(離) 이괘(離卦)는 우주만물 중에서 불을 상징하며,

☵ 감(坎) 감괘(坎卦)는 우주만물 중에서 물을 상징한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토록 우주생성 원리와 인류평화를 담은 국기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 동방에 위대한 대한민국의 가질 수 있는 태극기는 우주의 깃발인 것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평화를 이루는 중심에 태극기는 우주의 깃발이 될 것이라 믿어도 좋을 것이다.

태극기는 우주의 깃발이다